

소리마다 질감이 느껴지고 내게로 스며든다

| 이윤신 관광통역사 |

모든 새롭고 경이로운 능력은, 주체가 사라진 '종립모드'에서 온다는 것을 체험한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려줍니다(편집자 주).

내가 명상을 통해 영어를, 아니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식에 관해 호기심과 매력을 갖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잉글리쉬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손에 쥐어든 순간부터이다. 그것은 대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경이적인 정신적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면, 나는 영화광이었다. 나는 정말 영화를 볼 때



너무나 큰 행복감을 만끽했다. 영화관의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면서 커다란 스크린에 펼쳐지는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현재 삶 속에서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눈 놀듯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영화 속 캐릭터에 너무 빠져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영화관을 나오는 일도 다반사였다. 영화의 주제가 잘 파악되지 않는 날엔 그 다음 날까지 영화 내용이 온통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수능이 끝난 당일도 다른 친구들은 답을 확인하려 집으로 곧장 향했으나, 나는 그 날도 어김없이 영화관으로 직행했다. 그 당시 가장 애용하던 씨네 하우스 예술관에서는 작가주의 예술 영화를 두 편씩 동시에 상영하고 있었다. 내가 그 날 거기서 본 영화는 ‘뽀네뜨’라는 프랑스 영화였다. 어린 여자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불어가 마치 실로폰 연주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인 소리였다.

불어가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였는지 이전엔 미처 몰랐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해야지 라고 다짐했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고, 대학생활은 ‘쇼생크’를 탈출한 ‘팀 로빈스’가 된 기분으로 시작이 되었다. 대학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였다.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자유로움을 느꼈다. 넘치는 호기심을 채워 줄 책들과 각종 비디오 자료로 가득한 학교 중앙 도서관은 내게 종합 선물세트와도 같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모르는 게 있어도 주위에 물어 볼 사람이 없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었고 그래서 큰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만 보아도 안심이 되고 편안함을 느꼈다. 대학에 와서는 고등학교 때 영화만 보느라 멀리했던 책 삼매경에 빠지기 시작했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전부다 읽고 졸업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었다. 나는 이상하게 뭔가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버릇이 있다.

1학년 2학기가 막 시작된 어느 가을날 외국인 교수님께서 방학동안 프랑스에 갔다가 최신 양송 테잎을 사왔으니 듣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하셨다.

교수님께서는 샹송을 녹음한 테잎과 함께 노랫말 가사도 함께 복사해 주시면서 앞부분을 내 앞에서 조금 불러 주시기까지 했다. 교수님 입을 통해 들리는 샹송이 어찌나 감미롭게 들리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순간 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불어실력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는가에 대해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난 그때부터 내 한심한 불어 발음부터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빌려온 원서를 큰 소리 내어 매일 읽어 나갔다. 마치 내가 프랑스 사람인양 착각하면서 어느 한 단락을 정해놓고 소리가 좋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다. 그랬더니 실력은 일취월장하기 시작했다. 3, 4학년이 되어서나 보는 어려운 원서를 1학년 때부터 봤으니 1, 2학년 전공과목의 난이도는 내게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우리 과에서 불어를 가장 잘 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원어민과의 대화였다. 남들 보기엔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난 외국인 교수님과 대화할 때 그저 옹알옹알대는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다른 교수님들은 인정해도 아마 외국인 교수님들은 진짜 내 실력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불어로 번역해 열기설기 만들어 낸 내 엉터리 불어 문장 실력을…!!

나의 문제와 한계점을 내 자신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불어원서를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과에서 공인 받은 불어 발음 실력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과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은 항상 내 불어 발음을 칭찬해 주셨다. 어학연수를 다녀왔느냐, 프랑스에서 살다온 경험이 있느냐는 등 하시면서, 그 때문에 나는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소리 내어 연습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머릿속에 불어만의 독방이 있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보고 읽는 거야 누구나 연습하면 된다. 난 거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을 뿐이다. 원어민처럼 불어로 생각하고 내 자아를 불어로 표현하고 싶은 갈증으로 여전히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분석 시간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정사(원제:The Adventure)'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단조로운 화면 구성의 다소 지루하고 긴 영화를 보다가 어느 한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이지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경험에 무서운 느낌도 들고 매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여태까지 의문시 되어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그 순간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어서 외상은 없었지만 내 내면 어딘가에 아주 큰 충격이 있어서 변형이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에는 그 동안 생각해 왔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하나의 느낌표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황당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우선 말이 많고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던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어느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아주 깊은 침잠에 빠져 들었다. 머리 한 가운데가 묵직해지고 커지면서 큰 공간이 생겨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입력해 놓고 깊게 사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 승마를 배우러 다녔었는데, 말을 타면서 전해지는 몸의 진동이 뇌에까지 전해져서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쨌든 한 생각에 집중하다 어느새 나는 세상에 대해 그 동안 궁금해 오던 모든 것들에 의문이 다 풀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 전엔 어려워서 관심도 안 갖던 것들에 대해 눈이 뜨이고, 가장 놀랍고 반가웠던 체험은 불어가 모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불어 발음은 나도 놀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그 때 느낌은 내 목소리도 내 것 같지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그 동안 열심히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을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튼 그때의 나는 불어회화 시간에 물 만난 고기와도 같았다. 외국인 교수님과 남들 보란 듯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모습에 다른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어 테일들은 '어린 왕자'와 같은 쉬운 동

화책 수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항상 들어놓는 현지 방송인 TV5를 보기 시작했다. 앵커가 하는 말들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잘 들어왔다. 내가 처음 불어에서 실로폰 연주 소리를 느꼈을 때와 같은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불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불어가 영어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나는 집에 오면 항상 라디오에서 현지 영어 방송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루 종일 듣는 연습을 했는데, 도무지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런

데 이제는 동시에 영어도 아주 잘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에는 귀에서 텅 빠져나가는 듯하던 느낌의 소리들이 이제는 소리마다 질감을 지니고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게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놀라운 경험은 외국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일어났다. 우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TV에서 보고 듣는 내용들에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것만 같았다. 도서관의 책들도 제목이나 목차만 보면 내용을 대충 다 알 것 같았다. 학교 전공 수업이나 교양 과목들도 갑자기 시시해졌다. 교수님이 내준 리포트 과제마다 머릿속에 멋진 시안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정신의 키가 그때 때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정력적으로 변해갔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잠은 거의 자지도 않았다. 몸은 지쳤을지 몰라도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영어나 불어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에도 이상한 기운 같은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불어를 완벽히 습득해서 프랑스로 영화를 공부하려 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들어갔다. 문화원에서 빌려온 비디오와 테잎을 보고 들으면서 나는 내가 마치 프랑스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자연스런 연결 점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불어가 불어 그대로 머릿속에 쏙쏙 박혀 들어왔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다 나는 점점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병원에 실려와 누워 있으면서도 간간이 이 곳이 병실이구나 몇 번 확인만 할 수 있었다. 깨어나니 간호사 언니가 병원 온지 2박 3일이 됐다고 했다. 2박 3일을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도 않았다. 머리는 아주 둔해진 느낌이었다. 엄마는 걱정이 되어서 식사도 억지로 다 먹게 하시고 제 시간에 잠도 꼬박 자게 하셨다. 나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예전의 나를 잃어버린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어쨌든 그때 나의 상태는 별로 반갑지도 않았다. 원래의 나로, 내가 원하는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근데 다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때 그 순간들은 마치 긴 꿈속의 일들로만 느껴졌다. 영어나 불어도 그때처럼 들리지 않았다. 속이 상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만 싶었다. 점점 일상의 권태로움으로 긴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존의 영어 공부 방식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우연히 ‘잉글리쉬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책 내용 중 명상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어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알면서도 말 못하는 부분을 짚어준 책일 것이란 직감이 들었고, 그것은 적중했다.

내가 대학시절 경험했던 그 체험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다. 영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제2모국어로 배울 수 있는 기법을 설명한

책이었다. 머릿속에 한국어를 꺼놓은 상태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대충 책의 내용을 살펴 본 뒤, 나는 내가 한 경험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 불어로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 한국어 생각이 없었다. 오로지 머릿속엔 불어만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 사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바로 이거다 싶어 나는 책의 내용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테잎을 듣는데. 영어소리가 내 아랫배 부위에 부딪혀 들어오는 듯한 느낌과 영어 음성이 매우 잘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만 매일 영어를 듣는다면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다. 아쉽게도 그 경험은 잠시 일어났고 다시 또 일어나진 않았다. 그래도 그 느낌만큼은 아주 생생하다. 마치 영어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요즘은 그 체험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한꺼모드 수업을 듣고 매일 집에서 훈련을 한다. 한번은 영단어 명상법을 하다 머릿속에 온통 영어 테잎을 틀어 놓은 듯한 경험도 하였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 영어로 중얼대기도 한다. 요즘에는 영어를 들으면 머리 어느 한 부분에 들어와 박히는 것 같기도 하다. 영어를 들을 때만큼은 한국어를 잠시 꺼놓고 내 어린 영어 자아를 키워나가고 있다. 코스 중 짠하고 짜릿한 체험들이 점점 쌓여 정말 영어의 빛이 머릿속에 환하게 켜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